

세상에서 가장 컸던 우체통...기네스 10년만에 '흉물' 방치

지난 2009년 광주 수완동에 설치...활용 못해 '무용지물'

“지자체들, 세계 최고·최대·최장 따위 집착 버려야”

2009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우체통 하나가 설치됐다. 가로 3m, 세로 3m, 높이 7m, 무게 6톤에 이르는 이 우체통은 이듬해 1월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우체통'으로 인증받는다.

당시 광주 광산구청장은 “우체통이 모든 이의 기억 속에 항상 머물고 우리의 소망과 비밀을 품은 정겨운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며 희망우체통이란 이름도 달아줬다.

설치 당시 화제를 모았지만 2년도 못돼 '악발'이 다했다.

광산구는 2011년 작성한 문서에서 '특별한 스토리 없이 단순 시설 관리만 하고 있다며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우체통을 활용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어 명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후 우체통 안에 편지 쓰는 공

간을 마련하고 무료엽서를 비치하거나 소원엽서, 응원엽서 등 여러 행사를 마련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이어 2015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162.63㎡ 크기 우체통이 들어서면서 세계 최대 우체통이란 표현도 옛말이 됐다.

이따금 진행하던 행사도 2018년을 즈음해 완전히 끊겼다.

1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우체통 안은 주말 동안 내린 비가 새 바

에 고여있을 뿐 텅 비어 있고 그 밖엔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대형마트와 지척에 있는데도 우체통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도 있었다.

13일 오후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모씨(45)는 “수완지구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전혀 몰랐다”며 “이런 시설물은 안 짓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자체가 세계 최고·최대·최장 따위에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몇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등록금 반환 촉구하며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행진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천안, 평택, 수원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행진하며 '등록금 반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3차 추경예산 반려 및 재편성, 코로나19 논의과정에서 학생 참여, 21대 국회에서 예산안 확보 및 법안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선무효형’ 이재명 사건 대법 전합 회부...18일 첫 심리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항소심 형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심리기일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르면 7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내 위기 청소년 절반 '조건만남' 경험했다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국내 청소년 9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 신체 사진 요구 등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청소년 절반이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11월 성인 2300명과 일반 청소년 6423명, 위기청소년 166명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 청소년 624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1%를 나타냈다. 또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 유형에는 성적 대화,

청소년 9명 중 1명 성적 유인 피해 겪어 온라인 접근 87%

나체 또는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 유인, 화상채팅을 통한 야한 자세 유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성적 유인 경로는 인스턴트 메시지가 28.1%로 가장 많았고, SNS 27.8%, 인터넷 게임 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 166명 가운데는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이 47.6%로 조사됐다. 조건만남은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지인 소개 또는 우연한 기회에 돈, 식사, 선물, 술 등 대가를 약속받고 남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갖는 행위다.

특히 조건만남 경로는 채팅앱 46.2%, 랜덤채팅앱 33.3%, 채팅사이트 7.7% 등 온라인이 87.2%를 차지했다.

성인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평생 한번이라도 성매매(구매)를 경험한 응답자는 42.1%로 나타났다.

또 성인남녀 2300명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5%로 조사됐다. 다만 이 법이 구매·판매·알선·광고 등 성매매 관련 4개 범죄 처벌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7.1%로 이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34개 지역에 1570개 업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곳에서 총 3592명의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영업의 1차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을 뜻한다.

9세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경남 창원에서 9살 의붓딸을 학대해 온 계부 A씨(35)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35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3시간 35분만이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

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짙은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 호송차량에 내렸으며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을 육조에 담가 학대했다”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A씨는 “남의 딸로 생각하면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뉴스1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